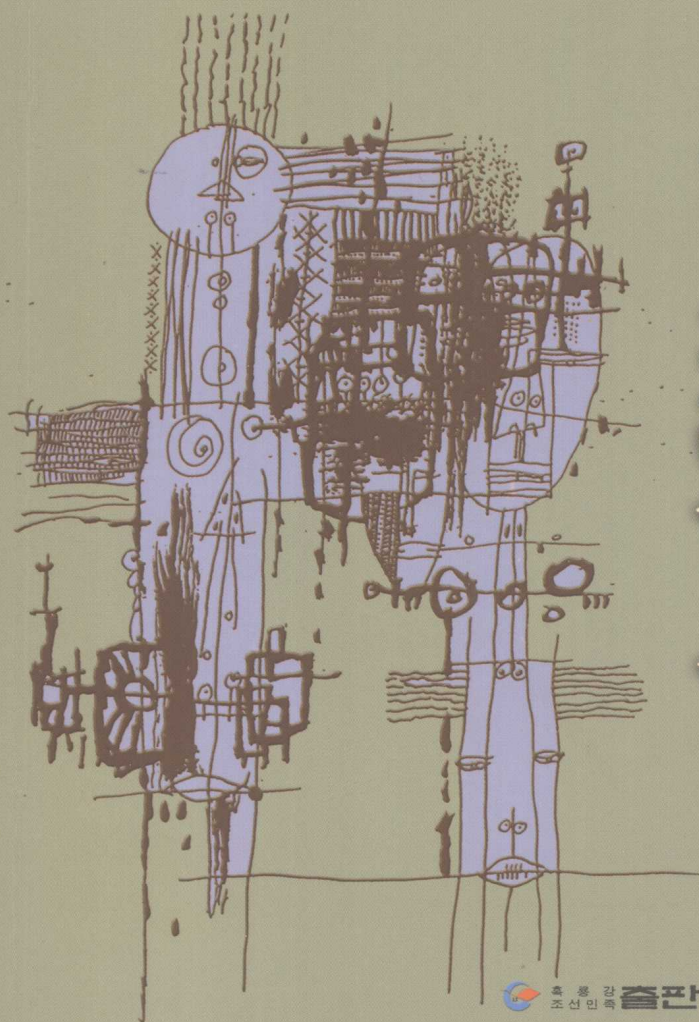


2007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허무궁 저

신사의 호주머니는 쓰레기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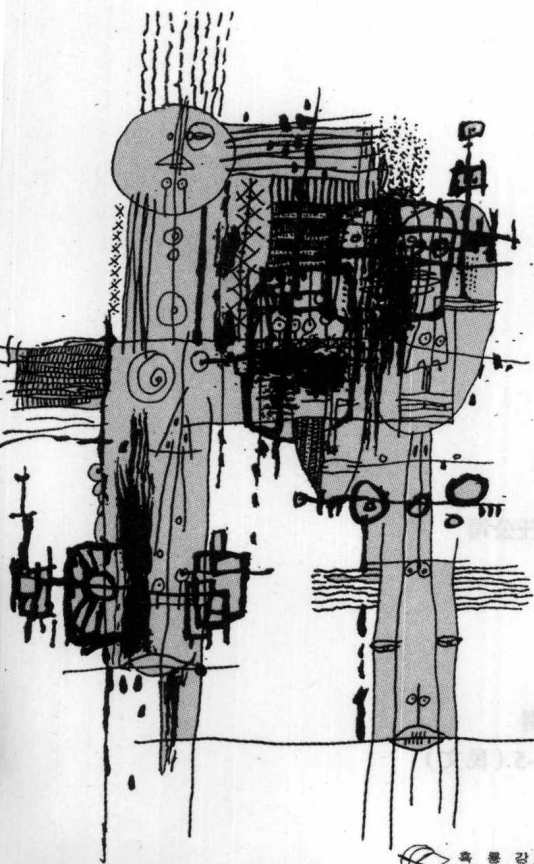
출판사

2007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 수상작가작품집

신사의 호주머니는 쓰레기통

허무공저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绅士的衣兜好似垃圾桶: 朝鲜文 / 许无穷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9
ISBN 978-7-5389-1466-5

I. 绅… II. 许…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
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47317 号

书 名/	绅士的衣兜好似垃圾桶
著 者/	许无穷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exmz@126.com
责任编辑/	金斗弼
责任校对/	徐 燕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长春市时风彩印有限责任公司
开 本/	880mm × 1230mm 1/32
印 张/	5.25
字 数/	130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66-5 (民文)
定 价/	12.00 元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머리말을 대신하여

남영전

오늘을 살고있는 현대인, 날이 갈수록 정신의 공허와 령혼의 고독으로 점점 더 곤혹에 빠지는것이 현실이고 추세이다.

지나간 한세기, 인류는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기적을 창조한 동시에 또 너무나 많은 굴욕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공구리성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류의 잠재적인 지능개발에 대성공을 거두어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을 전례없는 고봉으로 이끌었다. 인류는 생존환경과 자아개발 과정에서 또 전례없는 자유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불안과 곤혹에 몸부림치고있다. 기계와 기술에 대한 과분한 의뢰는 우리 생명의 주체성과 원창력을 상실하고있다.

때문에 20세기 인류의 이러한 실정을 고민한 대철학가들은 인류의 정신의 집을 새로 구축하는 일에 혼신을 불태웠다.

예로부터 문학작품은 지자가 신령과의 대화와 자아와의 교류에서 탄생한 숭고한 정신의 세계, 정신의 집이라 하였다. 이 정신의 집은 생명력이 강하고 감염력이 크기에 심령의 안착처이다.

지금에 와서, 정신세계가 고갈되는 현대인에게 좋은 작품 하나 선사한다는것은 말라가는 심령에 생명수 한모금 부어넣어 생명의 활력소를 환기시키는 훌륭한 작업이다.

새천년에 들어서서 광주모드모아그룹 리성일리사장과 손잡고 설립한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은 올해 제8회를 맞아 금년에 5명 수상자의 개인작품집을 합하면 지금까지 도합 43권의 작품집이 출판된다.

43권의 우수작품집,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규모있는 정신의 집을 구축한 셈이다.

《장백산모드모아문학상》이 8년을 견지할수 있었던 근본원인은 리성일리사장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고 또한 심양우성전자유한회사 황원수사장, 그리고 길림성 로동 및 사회보장청 부청장이며 《길림신문》, 《장백산》발전연구회 회장인 신봉철선생 등 유지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먹향기 풍기는 5권의 새책을 독자들께 선사하면서 재삼 리성일리사장, 황원수사장, 신봉철회장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이 책을 만드느라 로고가 많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여러 선생님들께도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9일

장춘에서

차 례

령혼을 찾는 현대인에게 정신의
집을 구축하는 일 남영전 / 1

- 가르침의 재미, 배움의 재미 / 1
인간이 살아있다는것은 / 5
고향을 잊지 못하는 리유 / 9
란자, 정자의 핵전쟁 / 12
반성하는 즐거움 / 16
봄의 스케치 / 21
비오는 날의 그리움 / 24
선글라스 낀 사나이 / 28
선입견 / 31
신년사 / 34
아침의 반달 / 39
역새가 포근하다 / 43
욕이란것은 인간만의 특성일까? / 47
선량하지 못함은 후천적일까? / 50
책은 어떨 때 읽는가? / 52
신 / 55
닭똥거름 인정거름 / 60
고궁 만여메터높이를 날아보는 마음 / 66

지구에 구멍 뚫어야지 / 69
책 / 73
칼라의 가을엔 무궁화도 자리 양보하더라 / 77
가장 행복했던 날 / 82
봄의 피가 흐르는 소리 / 86
사용가치가 심미가치보다 우선적이다 / 90
신사의 호주머니는 쓰레기통 / 94
와인 마시며 듣는 총소리 / 98
일본의 젊은 예술인들 / 104
불안한 세상에 필요한것은 가족애 / 107
자유의 공간, 누드신사 / 111
지진과 고향사진 / 115
빠알간 고추때문에 / 118
추석달을 서천에 내려줘야 하는데 / 120
돋보기부자 / 122
《망종》의 웃음거리 / 126
무궁화 / 131
미남이 되여보는 기분 / 135
사람은 되는것일수도 있는가보다 / 141
성인절에 해보는 시름 / 145
언어의 불가사의 / 149
동방 삼국을 넘나드는 《환경주의자》 장춘식 / 153

가르침의 재미, 배움의 재미

가르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실하게 느꼈다면 웬 싱거운 소리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사실 오늘에 새삼스레 이런 생각이 드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가르치는것이 중요하기에 공자의 말씀을 인용할 때엔 공자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것이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이라고도 하는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꼭 한번이상씩은 입에 담았던 말로는 그래도 《선생님의 가르침》일것이다. 가르침이 중요하게 되는것은 배움이 중요하기때문일것이요 또 그것은 아는것이 중요하다는 말로도 통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되돌아와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 혹은 많다는 말과도 통한다.

모르는것, 그것은 그 범위를 그려줄수 없는 무한의 공간이고 또 그러하기에 인간들은 그 무한의 공간을 메우려고 그냥 알려고 애를 딱 쓰는것이다. 원래 인간은 욕심꾸러기이니 까. 아는것과 모르는것, 그것이 과학이나 학문일 땐 누구나 박식과 천박의 대비를 이루어도 크게 놀라지 아니 하나 그것이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로 나설 땐 문명과 야만, 고품위와 저질인간, 고품으로 말해보면 량반과 상놈의 차이처럼 그 무슨 계급차이와 같은 인간성에 련결이 되고만다.

금년 8월초에 심양으로 와서 사업관계로 나는 건축로동자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들과 만나는 첫날부터 나는 그들에게 성을 내지 않을수가 없었다.

공장과 사무실 칸막이 일로 공지책임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나의 사무실에 아무데나 담배재를 털어놓고 침을 뱉곤 했었다. 나의 사무실이라 해봐야 책상과 결상만 달랑 놓은 썰렁한 방이지만 그래도 나에겐 새 사업을 스타트시키는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이다. 거미줄을 털어내고 먼지라 기보다는 아예 흙으로 깔린 바닥을 나는 얼마나 기를 쓰고 쓸어냈는지 모른다. 정전방지도료를 바른 바닥이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청소를 해놓은 곳이다. 나는 그들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처음엔 그냥 욕하고 성내고 했지만 도무지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다. 그들에겐 이 실내가 흙먼지가 날리는 저 창으로 내다보이는 밖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듯했던것이다. 하긴 자연에 몸 담구고 사는 우리이니 굳이 방을 만들어놓고 그속에 몸을 감추고있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몇천년동안이나 습관이 돼온 인간의 실내의식 내지 실내문화를 나 혼자의 힘으로는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다는것을 이 로동자들이 알아주었으면 얼마나 고마울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요즈음엔 고양이나 강아지까지도 제집을 쓰고 사는 형편이니 인간이야 더 말할것있으랴.

그후부터 나와 그들사이엔 남모르게 어떤 강좌가 시작이나 된듯 나는 공공위생의 중요성, 그것을 지키는 매너,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실제 행위방식 등에 대해 거론하게 되었고 그들도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었다. 공공위생의 역사적, 현실적, 정치적 의의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인차 받아들였다. 이룰데면 나의 일방적인 언론행위였지만 아는것

에 대한 추구는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었던것인지 나의 얘기를 잘도 들어주었다. 날이 감에 따라 그들의 배움의 의욕이 강해져 그들은 이럴 때는 어찌하나? 저럴 때는 어찌하나 하며 매너에 대해서 자주 물어왔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러면 신사다울것 같고 저렇게 하면 사내다울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었다. 사실은 자기도 대체 어느만큼이나 매너가 몸에 배여있는지 자신도 없으면서 그들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우스웠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일》이 그 심도가 깊어져서 서로 어색함도 없어져버렸기에 나의 그런 우스운 생각도 한순간뿐이었다.

나의 가르침이 효과를 봐서일가, 아니면 그들의 매너에 대한 추구심이 강해서일가, 이젠 그들도 나의 사무실에선 절대 침을 뱉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다. 어젠 나의 사무실에서 나갈 때 머리 숙여 인사까지 하는것이다. 너무나 놀라서 나도 벌떡 일어나 머리 숙여 맞인사를 했다.

《네, 잘 다녀가세요.》

우리에겐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것이다. 가르치는 재미요, 배움의 재미이다.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람만 하지 말고, 공공위생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람만 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들고 목청높이 통화한다고 나무람만 하지 말고, 그리고 길을 다니며 담배를 피운다고 나무람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들 에게 매너를 가르쳐주어야 할것이다. 한번, 두번 알 때까지 일깨워줘야 하는것인데 보아하니 텔레비나 라지오나 어디에서도 그런 교육은 하지 않고있는것이 오히려 더 한심하게 생각된다. 차라리 그런 선전과 교육을 해야

하는것부터 가르쳐주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 가르침은 말로 할 때도 있거니와 행동으로 할 때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나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에이즈의 예방도 그러하다. 그저께 방송된 봉황텔레비존방송의 에이즈예방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이 긴 시간동안 열렬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심양시 주택구입구마다에 매달아놓은 콘돔판매박스가 에이즈예방에선 훨씬 더 괜찮은 구실을 할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 콘돔이 원래 해야 할 구실은 제대로 하고있는지는 몰라도.

2005년 8월 27일

심양 삼릉중천 호텔 13층에서

2006년 5월 30일 수정

인간이 살아있다는것은

희뿌연 밤하늘에 반달이 번두리가 선명하지 않게 걸려있다. 얼음속의 자그마한 불덩이처럼 이제 당금 녹아버릴듯한 얼굴을 하고있다. 달의 주위의 하늘은 뿌연 먼지를 들쑥는지 회색으로 칠해있었다.

산동반도에선 봄엔 밀을 심고 여름엔 옥수수를 심고있는데 그 많은 옥수수대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정부의 금지령도 듣지 않고 이렇게 밭에서 태워버린다. 다른 곡식 같으면 그대로 땅을 갈아놓으면 다음해의 비료로 되지만 옥수수대는 그렇게 안되는 모양이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옥수수대를 땅밑에서 썩히려면 두해나 걸린다고 한다.

우리 고향에서는 소에게 먹였지만 이렇게 망망대해를 방불케하는 옥수수대를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을듯도 했다. 즈뽕하이텍기술창업원지앞 봉화공원의 늪가에서 나는 희미하면서도 나의 마음을 흔들어놓기에는 충분한 달을 올려다보며 사색에 잠겼다.

옥수수와 같은 식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듯 죽은 사람도 화장을 하여 하늘로 올려보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데 대체 이 살아있다는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재래로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죽었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지금 뇌사(腦死)를 죽음의 표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내장이식에 필요한 내장을 맥박 움직임이 있을 때 뜯어 내려는 인위적인 판단일것이다.

그럼 대체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 심장이냐 대뇌냐?

사회학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사상이 있기에 살아있는 것이다. 다른 동물과의 구별이라면 사색할줄 알고 그것을 애증이 분명하게 표달할줄 아는 대뇌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사회학론적의미로서 살아있다고 하는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자연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뇌의 활동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된다. 모든 동작, 생각의 총지휘부로서 움직임을 멈추면 곧 생이 끝나는것이다.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이 말한바와 같이 우주에서 인간은 한대의 나약한 갈대와도 같으나 사상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확실하다. 그렇다. 인간은 사상이 있기에 신조가 있게 되고 신조가 있기에 삶에 박력이 있고 또한 보람이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것은 사상이나 리상 같은것은 삶의 보람을 부여할뿐 생 자체의 증거물로는 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대뇌가 활동을 한다면 틀림없이 살아있는것이지만 대뇌가 활동을 멈추었다고 해서 죽은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증거물을 심장이라고 주장한다.

대뇌는 논리적이다. 그러나 심장은 정감적이다. 심금을 울려준다는 말은 있어도 뇌를 울려준다는 말은 없듯이, 가슴이 쫄 해난다는 말은 있어도 대뇌가 쫄 해난다는 말은 없듯이, 가슴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오른다는 말은 있어도 머릿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오른다는 말은 없듯이, 가슴이 타들어

간다는 말은 있어도 대뇌가 타들어간다는 말은 없듯이 등등
심장은 정감적이다. 심장이란 곧 가슴이다.

심장에서 만들어내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날라다주는 혈액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것이다. 제아무리 활발한 사색을 할 수 있는 대뇌일지라도, 제아무리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 가슴, 심장에서 공급하는 붉고 뜨거운 피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생의 동력은 심장인 것이다.

실험생리학의 창시인이며 혈액순환리론의 창시자인 윌리엄 하베이의 주장이 함멜톤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에 소개되었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있다.

《비교적 온화하고 비교적 완미한, 류동적이고 생기에 넘치고 풍부한 영양을 가진 혈액이 신체 각부분을 자양할 때 신체는 곧 활약하게 된다.》 1400년간의 전토일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혈관리론을 뒤집어엎어놓은 관점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몸을 지탱해나갈수 있는 원인이 피의 순환활동인데 이 순환활동을 시키는 것이 심장이란다. 심장의 신축에 의해 피가 공급되는데 이는 또한 우리의 감정에도 련관이 된다. 크게 성낼 때에는 머리에 피가 많이 가고 부끄러울 땐 얼굴에 많이 간다. 두렵거나 긴장할 땐 심장고동이 세진다.

그렇다, 바로 이 피가 인간의 정감을 키워주고있다. 피가 끊어넘친다는 말이랑, 심장이 두근두근한다는 말이랑 있는데 하여튼 심장이나 가슴에 대한 말은 다 느낌이다.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느낌이다. 느끼는 일이 적어지면 이 사회는 차갑게 된다. 철리적인 추리를 심장은 하지 않는다. 수학도 모르고 물리도 모른다. 이런것은 다 대뇌가 하는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대뇌는 논리적이다. 대뇌가 발달하면 똑똑하고 심장이 제구실 잘하면 정다워진다.

우에서 구구히 말을 꺼내서 대체 우리가 살아있는 근거란 뭇이더냐 하고 캐여물어봤지만 사실 나의 목적은 꼭 그것을 해명하고자 함은 아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나 개인적으로는 심장으로 살아감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복잡하게 털어놓았을뿐이다. 나 자체가 대뇌가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두서가 없어지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느끼는 삶, 정다운 삶, 이웃을 사랑할수 있는 삶을 더 귀중히 여기고싶은 마음이다.

심장으로 가슴으로 살면 그렇게 될수 있다.

2006년 10월 2일 밤 12시 50분

광석이 하고 술 마시고

고향을 잊지 못하는 리유

무더위가 났다 뛰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옷속에 스며든다. 이럴 땐 괜히 자꾸 힘이 난다. 달리기도 싶고 평생 해보지도 못했던 무술동작도 해보곤 한다. 허리도 앞뒤, 좌우로 돌려보고 다리도 굽혔다 폈다 한다. 당장 어느 세계경기장에 나가는 선수같이 말이다.

나는 무거운 가방을 왼손에 들고 오른팔을 힘있게 활개 치며 신토미쵸역전으로 향했다. 심양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온지 벌써 두주째이다. 심양에서 산동을 거쳐 일을 보고 다음 상해를 경유하여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던것이 9월중순이다. 집까지 가려면 JR엑스프레스를 타고 요코하마에서 다시 요코하마선을 갈아타면 되는데 요코하마에서 갈아타는데는 힘을 바뻐야 한다. 층계를 오르내리기 싫어서 나는 아예 마치다로 가는 배스로 가기로 했다. 시간적으론 조금 늦어질수 있으나 마치다까지 직접 가는게 좋았다. 마치다에서 택시를 타도 1600엔이면 족하다.

밤경치를 구경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멋도 좋다. 이렇게 배스를 탔는데 여기저기에 보이는건 간판뿐이었다. 아니, 자동차의 라이트랑, 고속도로의 가로수랑 보이는건 많았지만 그런건 상해에도 있다. 다만 나의 눈에 인상적으로 보이는것

이 바로 일본어로 된 간판들이었던것이다. 서먹서먹하게 그때 나는 일본엔 참으로 일본어로 된 간판이 많구나 하고 크게 놀랐었다. 어디 가나 일본어로 된 간판이었다. 중국에서 한달 가량 체류하다가 오래간만에 일본에 와보니 이렇게 당연한 일에도 크게 놀라움을 금치 못함은 대체 무엇때문일까?

인간은 정으로 산다. 그 정때문에 인간은 울고 웃고 하는데 그 정은 인간들을 묶어놓은, 끊을래야 끊을수도 없는 실과도 같은것이다. 아마 고향에 대한 정도 마찬가지일것이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을것이다. 그러기에 노래도 고향노래요, 시도 고향시다. 옛날부터 이 고향을 부르고 불러도 그냥 사람들은 이 고향만을 부르고있다. 그렇게도 싫지가 않은지.

고향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이다. 어디로 가나, 또 얼마나 오래 떠나있거나 관계없이 고향에 돌아만 오면 대뜸 자기 고향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진다. 자기가 태어난 땅은 태어날 때 이미 몸에 어머니의 기(氣)와 함께 숨배여있다고 론문을 써도 누구 하나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을것이다. 그것이 대체 얼마만큼의 과학적근거가 있든지.

먼지가 구름처럼 자욱하던 고향의 길거리라도 좋다. 자갈과 모래로 칸 그 길을 걸으면서 발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해본적이 없었고 질적거리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내리는 비를 원망한적 한번도 없었다.

쭉뚝 먹고 민들레 캐먹던 고향이었는데, 메돼지의 입자리가 난 감자 한알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구워먹어야 했던 고향이었는데도, 그렇게 찌지게 가난했어도 누구 하나 그것을 고향탓이라 일컫는 일 없더라.